

# “파리지앵 되어보세요”... 프랑스 감성 옮겨온 ‘이자벨마랑’

## 팝업 산책

LF, 내달 7일까지 신상품 홍보 2023 S/S ‘오스칸 문 백’ 라인 새롭고 힙한 것 선호하는 MZ 맞춰 포토부스·롤렛 게임 등 즐길거리 ↑

누구나 한 번쯤 동경했던 프랑스 파리의 파리지앵들의 패션 감성이 청담동에 찾아왔다.

생활문화기업 LF가 다음달 7일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프랑스 보헤미안 럭셔리 브랜드 ‘이자벨마랑(ISABEL MARANT)’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2023년 S/S에 론칭한 ‘오스칸 문 백’ 라인을 집중 조명한다.

‘오스칸 문 백’은 이사벨마랑이 이번 시즌 런웨이에서 공개한 신규 가방 라인으로, 지난 6일 글로벌 시장에 출시됐다. 90년대 분위기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고, 매력적인 반달 모양의 스타일과 메탈릭한 스티드 장식으로 독창적인 개성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팝업 스토어는 고객들에게 아직 생소



방문객 뿐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 또한 신상품을 각인하도록 의도했다.

한 오스칸 문 백을 소개하고 감성과 철학을 전달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꾸몄다.

외부 파사드에는 대형 오스칸 문 백을 드로잉하고 창에는 오스칸 문 백의 3가지 컬러를 진열해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도 신상품을 볼 수 있도록 꾸몄다.

내부 공간 또한 이사벨마랑이 전하는 프랑스 파리의 감성을 재현하는 데 충실해 여느 팝업스토어 보다도 인스타그램머블(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감성적인 풍경)하다. 프랑스 파리 거리의 감성을 그대로 재현한 키오스크와 카운터에

12가지의 다채로운 신상품 컬러와 오스칸 문 백 모양으로 형상화한 색색의 풍선들로 낭만적인 분위기를 의도했다.

전시뿐 아니라 즐길거리도 많다. 패셔너블한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 부스는 물론, 액티비티 존에서는 오스칸 문 백 모양의 타투스티커와 이바벨마랑 양말, 로고 풍선 등을 증정하는 롤렛 게임 등도 마련했다.

이번 팝업스토어 기획을 담당할 박유정 LF 수입1BPU 부장은 “새롭고 힙한 것을 선호하는 MZ세대 소비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신제품을 색다르게 경험하



편히 앉아 쉴 수 있는 공간. 프랑스 파리의 노천 카페가 주는 감성이 느껴진다.

/LF

고 SNS에 자랑하고 싶은 요소들로 공간을 감성 있게 꾸민 것이 이번 팝업의 특징”이라며 “단순 신제품 홍보를 넘어 고객들이 브랜드를 체감하고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놀다 가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F에 따르면 이번 이사벨마랑 팝업스토어는 엔데믹(풍토화)를 맞으며 패션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 보다 높은 데 힘입어 큰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팝업스토어 개점 첫 주인 15일부터 21일까지 기간 동안 이번 시즌 가방 장르 매출이 전년 대비 117% 증가했고

특히 오스칸 문 백의 매출은 전 주 대비 2배 이상(130%) 늘었다.

한편, 이사벨마랑은 1994년 프랑스 디자이너 이사벨 마랑이 론칭한 프렌치 시크를 지향하는 패션 브랜드다. 현대적이고 절제된 실루엣에 파리지앵의 감성을 가미한 패션을 선보인다. 특히 트트백 엔키, 레더 슬라우치 백 뉴웨이, 헬비 등 가방과 산티아고 웨스턴 부츠 롤리엣, 롱부츠 댄비 등 신발에서 브랜드를 대표하는 히트 상품들이 많이 나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제약업계, 제약바이오 육성 방안 기대감 ↑

제약 주권 확립 가능할 것 평가 효율·구체적 실행방안 촉구도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업계는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자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둔 제약 주권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촉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6일 논평을 통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부의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과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2027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블록버스터

신약 2개와 글로벌 50위 안에 드는 대형 신약 3개를 배출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및 수출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오는 2027년까지 연매출 1조원 이상을 거둘 블록버스터 신약을 최소 2개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국내 제약사 최소 3곳이 글로벌 50대 제약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의약품 수출 규모는 지난해 81억 달러 수준에서 2027년 160억 달러로 약 2배 확대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제약바이오 산업 일자리는 2021년 12만 개에서 2027년 누적 15만개로 늘린다.

이를 위해 미국·유럽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블록버스터 신약 10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5년간 민·관 연구개발(R&D) 총 2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제약바이오산업을 국가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

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중장기적인 지원 정책과 명확한 방향성, 과감한 투자가 필수라는 점에서 이번 발표에 거는 산업계의 기대감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오 공급망 강화 등 행정명령에서 보듯이 제약바이오산업은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종합계획에 이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협회는 “이번 종합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시행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동국제약, ‘판시딜’ 탈모치료제 5년연속 1위

제25차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탈모 치료제 동국제약 ‘판시딜’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발표한 ‘2023년도 제25차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조사결과에서 소비자 산업군 ‘탈모치료제’ 부문 5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는 대한민국 소비생활을 대표하는 각 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을 측정하는 지수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1999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브랜드 평가 모델이다. 전국 1만 23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조사를 거쳐 산업 부문별 대표 브랜드를 선정한다.

판시딜은 전년보다 5% 상승한 브랜드파워 지수(K-BPI) 787.9점(1000점

만점 중)을 획득했으며, 2위 브랜드와는 380점의 격차를 보이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충성도 항목 모두 높은 점수로 우위를 나타냈다. 특히 최초 인지도가 73.4%로 전년 대비 24%나 상승해 2위, 3위 브랜드와 큰 차이를 보였다.

K-BPI 세부 항목별 최고 점수를 받은 것은 판시딜이 일반의약품 경구용 탈모치료제 중 9년 연속 판매 1위(아이큐비아 데이터 기준)를 기록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히 선택 받은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세경 기자 seilee@

## SK플라즈마, 5월에 인니 혈액제 공장 건설

자카르타 인근 2025년 완공

SK플라즈마가 오는 5월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에 혈액제제 공장 건설을 시작한다. 2025년 완공되면 연간 100만 리터 규모의 혈액제제 생산이 가능해 인도네시아 자급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6일 회사측에 따르면 김승주 SK플라즈마 대표는 지난 24일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부디 구나디 사디칸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이 참석한 행사

에서 인도네시아 혈액제 공장 건설 및 운영을 위한 공동 선언서를 발표했다.

김 대표와 인도네시아 제약사 대우인 피온 안드리안토 데르나트라 이사는 공동 선언서를 발표하며 SK플라즈마의 인도네시아 혈액제제 공장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해 전폭적인 지원 및 협력을 약속받았다.

사디칸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복원력 있는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자리는 양국 정부와 민간기업 3자가 꾸준히 노력한 결

실이며, 앞으로도 꾸준한 소통을 통해 양국 모두가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에 SK플라즈마 혈액제제 공장 건설을 최종 승인한 바 있으며, SK플라즈마는 오는 5월 착공하여 2025년 중순 완공을 목표로 연간 100만 리터의 혈장 원료를 처리할 수 있는 혈액제제 공장 건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혈액제제 공장이 완공되면 SK플라즈마는 현지 공장을 운영하며 혈액제제 제조·설비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게 되고, 인도네시아는 제약 분야 자급화에 한걸음 다가갈 전망이다. /이세경 기자

## 유한양행, ‘프리미엄 유산균’ 라인업 강화

‘덴마크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 출시

유한양행이 명품 유산균 ‘덴마크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를 출시하고 약국 전용 프리미엄 유산균 라인업 강화에 나섰다.

‘덴마크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은 프리미엄 장건강 유산균으로 유산균 전문 기업인 덴마크 크리스찬한센의 세계 특허 균주의 국내 최초 배합 유산균이다. 락토바실러스 람노시스 LGG 균주와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F-19 균주의 국내 최초 배합으로, 하루 한 알로 1일 100억 CFU(집락형성단위)를 보장한다.

크리스찬한센의 특허 균주 LGG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유산균 균주 중 하나로, 30년 이상 1000여편의 논

문과 200편 이상의 인체적용시험이 되어 신생아, 영유아부터 임산부, 노인에게도 안전성을 입증받은 유산균 균주이다. 특히 LGG는 우수한 장 정착력과 생존력으로 장 점막 내벽에 강력하게 부착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특허 균주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F-19 균주는 장 내 세균총의 균형을 조절해서 장건강뿐만 아니라 면역건강에 도움을 준다.

유한양행의 덴마크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냉장보관이 필요없는 프리미엄 특수용기를 활용, 유산균을 습도와 빛에 안전하게 하며, 하루 한알 공복에 간편하게, 초소형 캡슐을 섭취하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세경 기자